

투데이칼럼

‘문화재 스틸러’도 감동하여 되돌아온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최근 도난문화재 환수 관련 TV드라마 ‘스틸러(일곱 개의 조선통보)’가 방송 중에 있다. 베일에 싸인 문화재 전문 도둑과 그에 맞선 문화재청 공무원과 전담 경찰 등 비공식 문화재 환수팀이 똬처 불법 은닉한 문화재를 통해 하면서도 열정적으로 환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 고창에도 일제강점기에 도난당했다가 스스로(?) 되돌아온 보물이 있다.

풍요롭고 찬란한 불법의 풍경과 어우러진 선운사 지장보궁에 특별한 사연을 간직한 불상이 그 주인공이다.

이 불상은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로, 1476년(성종 7년) 만들어져 전해 오는데, 선운사 도솔암에 봉안된 또 다른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과 선운사 좌당암의 석조지장보살좌상(보물)과 함께 선운사의 지장삼장(地藏三藏)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지장보살(地藏菩薩)은 현재(現世)의 인간 세상과 사후(死後) 세계인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



김진

고창군 문화재전문위원

까지도 구제해 주어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비로운 보살이다.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청동 표면에 금칠을 하였으며, 무건과 같은 보관을 머리에 쓴 모습이다.

온화하고 후덕한 얼굴에 눈, 코, 그리고 작은 입술이 묘사됐고, 짧은 목에 붉게 주름진 삼도가 표현됐다.

건장한 몸에는 통견의 두꺼운 옷을 걸쳤고 세 줄로 내려온 목걸이가 장식됐다. 또한 손의 모양인 수인(手印)과 손금까지 섬세하면서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장보살 불상 중 하나인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은 기

적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일본인 2명과 절도범이 거금에 일본으로 팔아넘겨 반출됐었으나, 소유했던 일본인이 2년 뒤 자수하듯 고창경찰서에 연락하여 다시 고창 선운사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일본으로 반출되어 처음 소장했던 일본인의 품속에 수시로 지장보살이 나타나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암에 있었으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이후로 병이 들고 점차 운수나 살림살이가 기울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지장보살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

다. 하지만 이후 다른 소장자들에게도 품속에 나타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되자 결국 마지막 소장자가 된 일본인이 본디 제자리로 모셔갈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렇듯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은 도난당한 지 2년여 만인 1938년 11월에 고창 선운사로 스스로 돌아온 것이다. 당시 반환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갔던 일행이 찍은 기념사진에는 함께 간 선운사 주지인 이우운 스님의 이름과 함께 간략한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2023 세계유산 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온전한 복원을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선운사를 포함한 다양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고창군을 방문하고 있다.

TV 드라마를 통해 도난 및 해외로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애환을 이해하면서 ‘문화재 스틸러’도 감동하여 돌아온 영험한 고창 선운사의 지장삼장도 직접 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기원해 본다.

사설

소액생계비 대출 규모

취약 계층에게 최대 1백만 원까지 빌려 주는 소액 생계 대출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연말도 되기 전에 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 당국이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섰다.

어느 60대 남성은 얼마 전 100만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았다. 대학생 자녀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가던 중 암 진단을 받아, 절박한 심정으로 창구를 찾았다. 금융기관에선 더 이상 빌릴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건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더 빌릴 데도 없고 은행에 가도 빌려주지도 않았다.

어렵고 막막했던 것이다. 연 15.9%, 만만치 않은 이자는 감수할 수 있었다.

그는 이자가 30%, 40%가 된다고 해도 받고 싶은 입장이었다. 이처럼 신용등급이 낮아도 연체 이력이 있어도 100만 원까지는 바로 빌릴 수 있다는 게 소액생계비 대출의 장점이다.

다. 출시 3주 만에 1만 5천여 명이 이용했다. 연말이 되기도 전에 마련했던 1,000억 원이 바닥 상황이다. 결국 금융회사의 기부금 형식으로 64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액수다. 앞으로도 재정적인 방향, 재원 확보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출 창구를 두드린 취약계층 중에는 돈을 빌리려나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았다. 100만 원 대출에도 넘어갈 만큼 상황이 절박해서였다. 사금융을 알아보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뜻밖의 소액 생계비 대출 행은 제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들까지 자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힘든 사람들이 많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쌀 대신 가루쌀 재배 지원

남아도는 쌀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 서도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남아도는 쌀 대신 밀이나 콩 재배를 유도하고,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가루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 쌀이 남아도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실제로 거대한 성벽처럼 쌓인 800kg들이 쌀 포대가 곳곳에 있다. 쌀 포대 하나 높이가 1m 정도다.

6개씩 6m 높이로 창고에 꽂 들어 차있다. 84㎡ 국민경형 아파트 6채 면적의 창고는 이미 포화상태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사들인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 수준을 넘어섰다. 올해는 180만 톤으로 지난해의 2배에 달한다.

정부는 쌀이 남아돌지 않고 쌀 한 가마니, 80kg에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재배 면적을 줄였다.

쌀 대신 밀·콩·가루쌀·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법제화했다.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빵으로 가공할 수도 있고 일반벼처럼 기를 수 있는 가루쌀의 재배면적을 여의도 33배 면적인 1만 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이다.

농민 소득을 보조해주는 농업 직불금도 올해 2조 원대에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전 정부도 ‘쌀 이외의 전략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쌀농사는 거의 100%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등을 적게 들어서 굳이 다른 작물로 갈아탈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관건은 정부가 벼보다 손이 많이 가는 전략 작물로 농민이 돌아설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반전 외치는 대만 시위대



3일 대만-미국 방위산업 포럼이 열리는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반전반미 시위대가 각종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할리우드 작가 1만여명, 15년 만에 파업 돌입



미국작가조합(WGA) 회원들이 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쿨버시티의 아마존 스튜디오 부지 밖에서 파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할리우드와 TV 작가 1만여 명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WGA 지도부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우리의 제안에 대한 스튜디오의 반응은 불충분했다”라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